



하나님의 죽음 위협에 대한 서사비평적 연구:
출애굽기 ‘피 남편’과 민수기 ‘발람과 나귀’ 본문을 중심으로*

이하나(계명대)

1. 서론

구약 성서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 그중 소위 ‘피 남편’(출 4:24-26)과 ‘발람과 나귀’(민 22:21-35) 본문은 유독 연구자의 눈길을 끌었다. 두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선지자가 그 임무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는 내용으로, 마치 하나님이 번덕을 부리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라며 자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보내진 사람들이다. 심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 및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이하나, “하나님의 죽음 위협에 대한 서사비평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지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수차례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화를 돋우지 않았던가!(출 4:14)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와 발람을 죽이려 하셨을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두 본문을 읽다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발람을 알 수 없는 이유로(혹은 매우 모호한 이유로) 죽이려고 했다는 공통점 이외에도 간과할 수 없는 공통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이 여행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다.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출 3:10) 이집트로 여행하던 중이었다. 발람 또한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는 말을 전하러(민 22:20) 출발하는 길이었다. 둘째, 모세와 발람은 십보라와 암나귀 즉, 제3자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다.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한 후 하나님의 위협은 모세에게서 사라졌고, 발람은 나귀가 야웨의 사자를 피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셋째, 목숨을 보존한 모세와 발람은 여행을 계속한다. 이들은 위협을 당한 것으로 인한 어떤 득실도 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 전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다시 출발한다. 마지막 공통점은, 앞서 제시된 공통점들이 각 이야기의 진행에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 공통점은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지금껏 이 두 본문 각각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의 관심인 두 본문의 문학적 비교와 관련해서는 엠브리(Bradly Embry)의 연구가 유일하다.¹ 엠브리는 모세와 발람 이야기 속 공유되는 요소

1 본 연구를 착안하는 데 영감을 준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발람과 관련한 상호 문학적 비교 방법에 대하여 Jonathan D. Safran, "Balaam and Abraham", *Vetus testamentum* 38 (1988), 105-113; Ricky Novick, "Abraham and Balaam: A Biblical Contrast", *Jewish Bible Quarterly* 35 (2007), 28-33; G. Savran, "Beastly Speech: Intertextuality, Balaam's Ass and the Garden of Eden", *Journal for Study of the Old Testament* 64 (1994), 33-55; Hayyim Angel, "When God's will cannot be alt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laam narrative and 1 Kings 13", *Jewish Bible Quarterly* 33:1 (2005), 31-39. 모세와 관련한 상호 문학적 비교 방법에 대하여 Gideon Miller, "'Bloody Bridegroom' in light of the Joseph narrative", *Jewish Bible Quarterly* 41:2 (2013), 113-116.

들을 관찰했는데, 특히 출애굽기 4장 24-26절 속 모세가 죽음 위협을 당한 원인에 대한 답을 위해 민수기 22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발람의 죽음 위협에 주목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과 민수기 22장 속 공유되는 문학적 요소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모세와 발람 이야기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패턴은 인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² 엠브리의 연구는 두 본문의 문학적인 비교 분석 및 해석의 훌륭한 예를 제공해 주었다. 모세와 발람 두 인물의 상호 문학적인 해석은 참신하고도 통찰력 있다. 본 연구는 엠브리의 상호 문학적 비교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앞서 제시한 두 본문이 공유하는 요소들에 대한 문학적 해석을 할 것이다.

두 본문의 해석은 각 본문의 기원, 삶의 자리, 형성 과정 등의 역사비평적 관심과는 상관없이 현재 본문 자체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더햄(J. Durham)은 출애굽기 4장 24-26절에 대해 “출애굽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³이라고 지적하면서, 본문의 모호함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기사의 출처와 원문맥,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기사가 차지하는 의미와 상관없이 현재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각 본문의 출처나 원래의 이야기 단위의 의미와 기원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 구절들을 현재의 문맥 안에 놓은 편집자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문맥 속에서 그 기사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라 이해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 필자는 이에 동의하면서, 같은 원리로 본 연구의 궁극적 질문인 ‘하나님은 왜 모세와 발람을 죽이려 하셨을까?’에 대한 답 또한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만 일관성 있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서사비평적 해석방법은 매우 유용하고

2 Bradly Embry, “The Endangerment of Moses: Towards a New Reading of Exodus 4:24-26”, *Vetus Testamentum* 60:2 (2010), 177-196.

3 존 더햄, 「출애굽기」, 손석태,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130.

4 위의 책, 132.

적합한 방법론이다. 서사비평은 역사비평과 달리 성서 외적 자료가 아닌 형성된 최종 본문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려는 공시적인 방법론일 뿐 아니라, 다른 공시적 해석방법들에 비해 이야기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⁵

본 연구의 관심은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목적으로,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출 1:8-15:21)와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민 22-24장)⁶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작은 이야기인 본문 속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학적 형식과 요소들을 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사비평 방법론을 사용하여 두 본문의 서사비평적인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비교,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학적 해석을 통해 두 본문이 공유하는 문학적 형식이 이야기의 해석 방식과 주제를 공유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두 이야기의 비교읽기의 시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본문 간 비교로 드러난 ‘죽음 위협 구조’의 각 본문 속 역할을 규명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 모세와 발람을 죽이려 하셨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 학자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해석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발람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학자들이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한다고 한들 이 질문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작업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해석 하나하나가 본문의 의미를 그만큼 더 풍

5 마크 알렌 포웰, 「서사 비평이란 무엇인가」, 이종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9-47; 김정우, “성경 해석사에서 본 서사분석에 대한 서론적 고찰”, 「신학지남」 297 (2008), 137-138; 장일선, “구역 문학비평의 최근 동향”, 「신학연구」 38 (1997), 391-392.

6 본 논문에서 분석과 비교, 해석하려는 출 4:24-26과 민 22:21-25을 각각 ‘피 남편’ 본문, ‘발람과 나귀’ 본문으로 지칭하고, 이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전체 이야기인 출 1:8-15:21과 민 22-24장은 ‘모세 이야기’, ‘발람 이야기’로 구분하여 지칭하도록 하겠다.

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발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문의 의미의 풍성함에 기여해보고자 한다.

2. 본문의 번역

1) 출애굽기 ‘피 남편’ 본문(출 4:24-26)

① 번역

출 4:24 야웨께서 길의 숙소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25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문지르며 말하기를 “참으로 당신은 내게 피 남편이요!” 하니 26 그가 그를 놓아주었다. 그 때 그녀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② 인칭대명사의 확정

본문에는 선행사가 모호한 인칭대명사가 다섯 개(밑줄)가 등장한다.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인칭대명사가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김이곤은 본문이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 피의 의식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극적으로 예시하는 “명백한 예표”라고 보고, 첫 번째 대명사를 모세,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대명사는 모세의 아들, 마지막 대명사는 모세(또는 아들)를 가리킨다고 보고 해석하였다.⁷ 한편 김진명은 본문의 맛소라 텍스트 해석에서 ‘피 남편’이라는 단

7 김이곤, “출애굽기 4:24-26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 -고난신학의 한 전거로서 읽을 수 있는가?” 「신학연

어와 ‘당신’, 마지막에 놓인 ‘그’의 연관성을 통해 적어도 이 두 개의 인칭 대명사는 모세를 가리킨다고 본다.⁸ 이 또한 여전히 앞선 대명사들이 다른 인물을 가리킬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 단위 속에 모호하게 등장하는 인칭대명사를 각각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 또는 ‘당신’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능성은 여러 가지 일 수 있으나, 그것이 누구든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모호한 본문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본문을 현재의 문맥 안에서 이해한다는 원칙 속에서 볼 때, 본문을 현재의 문맥에 놓은 편집자는 본문을 통해 분명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로는 야웨가 만난 인물은 모세 이외의 다른 사람일 수 없다.⁹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본문의 인칭대명사들의 선행사를 ‘모세’로 보고 있으며, 「개역」, 「공동」, 「새번역」은 물론이고, RSV, NEB, NIV 등의 많은 성경 역본들 또한 같은 견해를 갖는다. 따라서 본문을 전체 ‘모세 이야기’를 통일성 있게 구성하는 단락이라 보는 본 연구의 관점을 기준으로 인칭대명사를 확정한다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칭대명사를 모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 인칭대명사는 모두 선행사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인칭대명사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모두 모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③ 문지르며

동사 𐤑𐤍(나가아)는 히필형으로 사용할 때 ‘달다’, ‘바르다’, ‘도달하다’ 등

구」 29 (1988), 127-134.

8 김진명, “출애굽기 4장 24-26절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인가?” 「구약논단」 74 (2019), 259-261.

9 존 더햄, 「출애굽기」, 132.

의 의미를 갖는다.¹⁰ 이 번역은 ‘바르다’라는 단어의 문지르는 형태를 고려한 의역으로, 본 연구에서 비교하는 발람 본문과의 관계를 고려해 선택했다.

2) 민수기 ‘발람과 나귀’ 본문(민 22:21-35)

① 번역

민 22: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그의 암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는데 22 하나님은 발람이 따라감으로 분노했다. 그래서 야웨의 사자가 그를 대적하기 위해 길에 섰다. 발람은 그의 암나귀 위에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다. 23 그 암나귀가 야웨의 사자가 길에 선 것과 손에 칼을 빼 든 것을 보고, 그 암나귀가 길에서 떠나 받으로 갔다. 그러자 발람이 그 길로 돌이키려고 그 암나귀를 채찍질했다. 24 야웨의 사자가 이쪽에도 담이 있고 저쪽에도 담이 있는 그 포도원의 좁은 길에 섰다. 25 그 암나귀가 야웨의 사자를 보고 그 담에 스스로 몸을 눌러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눌러지게 하자 그가 다시 암나귀에게 채찍질했다. 26 야웨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27 그 암나귀가 야웨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다. 그러자 발람이 분노하여 그 암나귀를 때렸다. 28 야웨가 그 암나귀의 입을 열었다. 그 암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 번 때렸습니다.” 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 “내가 나를 조롱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즉시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30 그 암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계속 올라타는 암나귀가 아닙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말했다. “없었다.” 31 야웨가 발람의 눈을 벗겼다. 발람이 야웨

10 BDB, 619. strong code 5060.

의 사자가 길에서 있는 것과 손에 칼을 빼 든 것을 보고 사자 앞에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32 야웨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했다. “너는 왜 너의 암나귀를 이렇게 세 번 때렸는가? 자,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하기 위해 나왔다. 나를 반대하기 위한 너의 길이 참으로 완악하구나. 33 그 암나귀가 나를 보고 이렇게 세 번 돌아갔는데, 암나귀가 나를 돌아가지 않았다면 참으로 이 순간 내가 너를 죽이고 암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34 발람이 야웨의 사자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 길에 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눈에 악하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35 야웨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오직 내가 네게 하는 말씀만, 그것만 말하라.” 그리고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

② 암나귀

「개역」에서 ‘나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אָטוֹן(아톤)이다. ‘아톤’은 암나귀이며, 숫나귀는 חֲמוֹר(하모르), 어린 나귀는 עֵיִר(아이르)라는 각각 다른 단어를 갖고 있다. 암나귀로 번역한 이유는 첫째, 히브리 성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밝히고자 함이고 둘째, 십보라와 관련한 비교해석을 위해서이다.

③ 야웨의 사자

מַלְאָךְ הַיְהוָה(말야크 아도나이)는 ‘사자’(출 23:20; 삼하 24:16), ‘선지자’(학 1:13; 말 3:1), ‘제사장’(전 5:5; 말 2:7)을 가리킬 때 두루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인물을 가리키므로 ‘사자’로 번역했다.

3. 모세와 발람 이야기의 서사비평적 분석 및 비교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방 왕에게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행을 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엠브리는 이러한 구조를 ‘사명 여행 내러티브(missional journey narrative)’로 정의한다.¹¹ 모세는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여행을 간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말을 전달하기 위해 브돌에서 모압으로 여행한다.

두 이야기 속에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적인 구조가 있는데, 여행 도중 하나님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중재자에 의해 죽음을 모면하며, 이후 원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행을 계속한다는 구조이다. 모세는 길가 숙소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데, 십보라의 할례로 죽음을 모면하여 여행을 계속했고, 발람은 마찬가지로 가는 도중 죽음의 위협을 당했으나 암나귀에 의해 죽음을 모면하고 여행을 계속했다.

두 이야기는 구조 뿐 아니라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도 형태적, 의미적으로 많은 부분 공통된다. 모세와 발람은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그들을 위협에서 구해주는 십보라와 나귀는 모두 ‘여성’이며, 이들이 구원의 행위를 할 때 모세의 발에 피가 ‘발리고’ 발람의 발이 벽에 ‘짓눌리는’ 방식으로 이들의 ‘발’이 연관이 된다. 십보라와 나귀의 구원행위가 있는 후, 이들은 ‘말’을 하며, 이 말들은 책망 및 비난하는 듯하다. 죽음을 모면하고서 모세와 발람의 사명 여행은 계속된다. 또한 이야기 내내 모세와 발람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암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모세와 발람이 아닌 ‘아내’와 ‘암나

11 Embry, "The Endangerment of Moses: Towards a New Reading of Exodus 4:24-26", 179.

귀'가 그 사실을 알아챘고, 이들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다.

두 이야기를 정리해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모세와 발람 본문의 구조

모세 임무 수행	죽음위협		중재자에 의한 구원행위					죽음의 모면		계속 되는 임무 수행	
	(모세의 무지?)							(모세의 깨달음?)			
길, 숙소	야웨, 모세 만남	야웨가 모세를 죽이려 함	십 보 라	돌칼을 취함	포피를 뱌	모세의 발에 바름	피 남편 (십보라의 말)	놓아줌			
아침, 길	하나님 진노	야웨의 사자가 대적함	암 나 귀	피함	담에 발람의 발 짓 누름	주저않 음	나귀와 발람의 대화 (나귀의 말)	사자 의 말	발람 의 회 개	임무 재확 인	다시 여행
발람 임무 수행	발람의 무지							발람의 깨달음		계속 되는 임무 수행	
	죽음위협		중재자에 의한 구원행위					죽음의 모면			

엠브리는 모세와 발람 본문에 공유되는 구조와 단어, 개념을 중심으로 '거울-읽기'¹²를 통한 비교를 시도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모세와 발람 '사명 여행'의 구조 속에서 겪는 위험이, 그들이 맡은 사명의 특수함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죽음의 경험'임을 밝히고, 단어 및 개념의 비교를 통해 모세와 발람이 대비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고 해석한다.¹³

그러나 민수기 22-24장의 '발람 이야기' 안에서만 볼 때 발람에 대한 평가

12 Ibid, 180.

13 Ibid, 193.

는 부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다.¹⁴ 발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고, 그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조건에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신실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이었다. 랍비들의 전통이 담긴 민수기 랍바(Numbers Rabbah)에서 비록 모세의 반-영웅(counter-heroes)으로 묘사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비교가 가능했던 것은, 발람이 모세와 비견될 만한 영적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¹⁵ 실제로 구약 성서 안에서 발람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민 22:1-24장; 수 24:10¹⁶; 미 6:5). 따라서 발람 내러티브 이후에 등장하는 발람의 부정적인 견해를 들어 본문 속의 발람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¹⁷

발람에 대한 선입견을 뒤로하고 ‘발람 이야기’를 읽는다면, ‘모세 이야기’ 중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까지의 맥락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은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함께 읽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두 이야기에서 공유되는 요소가 각 이야기 속에서의 역할 또한 같다면, 이것이 바로 대응하는 두 요소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기드온 밀러(Gideon Miller)는 모세와 요셉 내러티브를 비교하는 그의 연구

14 김진명은 보통 발람 이야기 단락이라고 보는 민수기 22-24장의 범위를 민수기 22-25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확대된 범위 안에서 발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발람의 최후와 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물질적 유익을 위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진명, “발람 이야기의 단락 범위 재설정을 위한 제언”, 『구약논단』 46 (2012), 30-31. 이는 민수기 24-25장 내러티브 속에서 발람 의도의 사악함을 추정하는 것에는 긍정적이나, 22-24장 내러티브 단락과 25장과의 관련성이 모호해진다든 때문에가 있다.

15 Charles F. Horne ed., *The Sacred Books and Early Literature of the East*, 4 (London: Parke, Austin, and Lipscomb, Inc, 1917), 118.

16 발람이 ‘축복’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17 본문은 발람 전승을 주제로 한 다른 본문들(신 23:4-5; 수 24:9-10; 민 31:8; 미 6:3-5) 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으며, 후대로 갈수록 발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왕대일은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신앙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작용하였다고 판단한다. 왕대일, “본문 비평 없이 성서 해석이 가능한가? -민수기 22:5a의 본문 비평과 본문 해석.” 『Canon&Culture』 2:1 (2008), 188-189.

에서, 출애굽기 ‘피 남편’ 본문은 그 구성과 패턴이 일치하는 요셉 내러티브의 해석을 적용할 때 ‘피 남편’ 본문의 의미가 분명해 진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두 이야기가 같은 구조, 같은 문학적 요소를 공유한다는 것은 두 이야기를 하나로 읽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¹⁸ 따라서 공유하는 각 요소가 두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교 읽기와 해석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할이 일치하는 요소에 대해 서로를 해석하는 과정이 첨가될 것이다. 이것은 주로 ‘발람과 나귀’ 본문에 대응되는 ‘피 남편’ 본문 속 요소를 해석하는 데 사용이 된다. 왜냐하면 ‘피 남편’이 ‘발람과 나귀’ 본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더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1) 배경

모세와 발람이 죽음 위협을 당한 맥락적 배경은 하나님께 임무를 받아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전이다. 이 사건은 모두 여행 ‘길’(777/다라크) 위에서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숙소에 있을 때’이고 발람은 ‘아침’이다. 여행자에게 숙소는 여행 중 쌓인 피로를 풀고 밤을 지새우는 곳이다. 따라서 모세가 야웨를 만난 것이 ‘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은 모든 것이 흰히 보이는 밝은 아침에 야웨의 사자를 만났지만 볼 수 없었다. ‘발람과 나귀’ 본문에서 아침인데도

18 “피 남편의 이야기의 근원을 캐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서가 아니라 창세기 그리고 요셉 내러티브에서 그 해석을 시작해야한다. 요셉과 모세의 특징들을 비교하면 그 둘 사이의 상호관계성이 암시된 그들의 페르소나의 구성, 패턴이 표면에 나타난다. 게다가 문법적인 유사성은 두 내러티브들이 하나로써 함께 읽혀져야 한다는 부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요셉의 렌즈를 통해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특별한 지점 속에서, 모세의 본질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속에서 피 남편의 사건은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다.” Miller, “‘Bloody Bridegroom’ in light of the Joseph narrative”, 113.

보지 못하는 발람의 상태에 대해, 그의 눈이 하나님에 의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모세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는 야웨가 모세를 만났다는 사실만 암시될 뿐이다. 발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웨의 사자는 발람을 만났지만, 발람은 야웨의 사자를 볼 수 없었다. 즉, 발람은 야웨의 사자를 만나지 않았다. 또한 눈이 어두워져 야웨를 볼 수 없었다는 어떤 암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발람과 비교할 때, ‘피 남편’ 본문이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눈의 어두운 상태 즉, 모세의 무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죽음 위협

발람이 죽음 위협을 당한 이유는 명백하다. 그가 모압에서 온 고관들과 함께 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갔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야웨의 사자를 보내 그를 대적하도록 한다. 이 ‘대적’¹⁹이라는 단어는 그 길을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보인다. 야웨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섰다는 언급도 하나님의 분노가 발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말한다.

이 상황은 모세를 만난 야웨가 그를 ‘죽이려’ 하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발람과 달리 모세를 죽이려 하는 야웨의 동기는 이후에 암시될 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야웨가 자신이 선택한 사자를 죽이려고 한 것은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야웨를 분노하게 했을 것이다.²⁰ 모세를 만난 야웨의 모습은 분노로 타올라 야웨의 사자를 보낸 하나님과 같다고 추측할 수 있다.

19 **תָּבַח**(사탄/대적하다) 시 38:20; 욥 3:1

20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동기 없이 행동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다. 테렌스 E. 프레다임, 「출애굽기」, 현대성서주석, 한미공동주석편집 역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37.

3) 중재자에 의한 구원행위

발람의 죽음 위협은 암나귀 덕분에 극복된다. 발람 이야기 속 등장하는 동물이 숫나귀(רִמְמֹן/하모르, 창 22:3)나 나귀 새끼(רֶעִי/아이르, 사 10:4)가 아닌 암나귀(אִתָּן/아톤)가 사용된 것은 모세를 구한 여성 십보라와 대응된다.

암나귀는 발람에게 닥친 위협을 ‘알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행동한다. 만일 발람이 알았더라면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실제로 발람은 야웨의 사자를 보게 된 후 바로 회개의 행위를 한다. 하지만 자기에게 닥친 위협을 몰랐기 때문에 암나귀가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암나귀는 야웨의 사자를 보고 길을 떠나(לֵךְ/알라크) 밭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발람은 모르고 채찍질 한다. 암나귀는 발람이 모르는 것을 알아채고 담에 그의 밭을 짓이긴다(אָחַז/라하츠). 여전히 발람은 모르고 채찍질 한다. 암나귀는 결국 발람 아래 엎드린다(שָׁבַג/라바츠). 그래도 모르는 발람은 분노해서 막대기로 암나귀를 때린다. 그때 하나님이 암나귀의 입을 열어 말 하게 한다(אָמַר/아마르). 이것은 암나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나귀가 자신의 말을 했더라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빌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화만 내는 발람의 어리석음을 책망한다.

발람의 암나귀와 같이 십보라 또한 모세에게 닥친 위협을 ‘알고’ 행동한다. 마찬가지로 십보라가 행동한 이유는 모세가 자신의 위협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눈은 밤처럼 어두워져 있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닥친 위협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죽음 위협의 원인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부싯돌 칼을 가져다가(קָחָה/라카흐) 그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כָּרַח/카라흐). 할례를 해야만 모세에게 닥친 위협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모세의 밭에 피가 흐르는 아들의 포피를 묻지

른다(אני/나가아). 이 행위가 끝난 후 십보라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 이요!’ 라고 말한다(אמר/아마르).

십보라의 행위도 암나귀처럼 네 개의 동사의 나열로 구성되었다. 발람 이야기와 비교해서 읽는다면, 십보라의 행위가 모세에게 위협을 알리는 단계적인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십보라가 먼저 부싯돌 칼을 가져왔고, 그래도 알지 못하자 아들의 포피를 베었고, 그래도 알지 못하자 모세의 다리에 피 묻은 포피를 문질렀다. 바로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모세에게 십보라는 책망하며 말한다. 두 본문에서 암나귀와 십보라의 행동에 사용된 동사를 중심으로 그녀들의 위기 모면의 행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암나귀와 십보라의 동사 비교

암나귀	경고1(לך)→모름→경고2(לך)→모름→ 경고3(ברך)→모름→암나귀의 책망(אמר)
십보라	경고1(לקח)→모름→경고2(כרת)→모름→ 경고3(אני)→모름→십보라의 책망(אמר)

암나귀와 십보라의 구원의 행위에 ‘발에 묻은 피’의 이미지가 공통된다는 점의 흥미롭다. 십보라는 모세의 발에 피 묻은 포피를 문질렀다. 이 장면에서 모세 다리에 붉은 피가 묻은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발람의 경우 본문 속에 명시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암나귀에 의해 발이 담장에 깰이겨져 난 상처에 붉게 피가 맺힌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여기에는 죄의 용서에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내재적 저자의 인식이 바탕하고 있을 것이다.²¹ 이것으

21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

로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한 형식이 완성된 것이다.

십보라는 모세가 당한 위협의 원인이 아들의 할례에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십보라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모세 이야기 속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람과 나귀’ 본문 속 암나귀가 하나님에 의해 야웨의 사자를 보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응해 해석해보자면, 십보라의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발람과 나귀’ 본문은 하나님이 암나귀의 입을 열고 암나귀를 통해 자기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통해 십보라의 지식 즉, 할례가 위기 모면의 열쇠라는 것도 야웨를 통해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²²

4) 죽음의 모면

모세의 위협은 ‘그가 그를 놓아주었다’라는 말로 끝나버린다. 모세를 죽이려던 야웨가 그로부터 사라진 이유는 분명하다. 모세가 죽어야 할 죄가 사라진 것이다. 모세의 죄는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우 중요한 표식인 할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야웨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할례라는 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소홀히 한 당사자인 모세의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²⁴ 그가

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22 많은 랍비적 전통은 모세가 위협을 당한 이유가 아들의 할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Targum Pseudo-Johathan: Exodus, trans. Martin McNamara and Michael Maher (Edinbug: Clark, 1994): 172. Pirkei de-Rabbi Eliezer 29 미드라쉬에 따르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할례의 피는 죄를 용서하여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해내는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된다(레 4:30; 겔 16:6).

https://www.sefaria.org/Pirkei_DeRabbi_Eliezer.29.1?ven=Perke_de_Rabbi_Eliezer_trans._Rabbi_Gerald_Friedlander_London_1916&vhe=Perkei_Derabi_Eliezer&lang=bi(검색일 2020.2.20.)

23 정규남, “할례와 출애굽기 4:23-26의 해석”, 「ACTS 神學과 宣教」 1 (1997), 77-81.

24 정중호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반드시 죄를 뉘우치거나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중호, 「새로운 성경 해석과 설교를 위한 제사장 신학」(서울: 대원기획출판, 2006), 44. 예를 들어, 레 4:2; 13; 23; 28 속죄제의 규례를 보면 범죄한 것을 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형식(아들의 할례와 피)은 이미 충족되었다. 이제 모세의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본문에는 모세의 행동이 나오지 않고 다만 야웨의 죽음 위협이 사라졌음을 알려줌으로써, 모세의 깨달음과 회개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발람은 나귀와 대화한 이후 눈이 밝아져 야웨의 사자를 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자신이 모압으로 여행하는 것이 야웨의 사자가 자기를 죽일 만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는 즉시로 뉘우치고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발람의 진정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는 ‘발람 이야기’ 속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야비한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발람이 보낸 두 번째 고관들이 왔을 때 발람이 하나님에게 다시 물었던 것이 바로 그의 사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죄였음을 지적하는 입장이 있지만,²⁵ 이것은 발람에게 억울한 일이다. 발람은 두 번째 고관들이 왔을 때 분명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먼저’ 밝힌 후에 다시 하나님께 물으러 갔다. 오히려 이 행동은 고관에 대한 예우였으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²⁶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이 발람에게 뜻밖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발람의 죄는 무엇인가? 발람이 고백한 그대로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음을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한 것이 바로 죄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유명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잘못 알아들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이었는지, 애써 부인하던 강렬한 욕망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

달은 당사자가 회개의 순서로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지중에 저지를 범죄의 경우에도 누군가 알려주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제로 회개의 순서를 밟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속죄는 형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깨달음과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

25 박철현,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2), 328.

26 Jeffrey M. Cohen, “Balaam, Did God change His Mind?”, *Jewish Bible Quarterly* 20:3 (1992), 160.

었는지 모르겠지만²⁷, 하나님은 확실하지 않은 자신의 뜻을 확신하고 떠나는 발람에게 죄가 있다고 본 것이었다.

이렇게 발람은 죄의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발에 흘린 피로 모든 죄 용서의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웨의 사자에게서 돌아온 말은 두 번째 고관이 찾아왔을 때 밤에 받은 말과 같았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35절).” 거듭된 명령에 발람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이 거듭된 명령은 발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암나귀까지 동원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발람은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5) 계속되는 임무 수행

하나님의 거듭된 명령과 발람의 진정성은 이후 ‘발람 이야기’에서 증명된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앞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선포했으며, 사명을 다한 후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모세 이야기’ 또한 죽음 위협 사건 이후 별 탈 없이 그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출애굽기 ‘피 남편’과 민수기 ‘발람과 나귀’ 본문의 재구성

두 본문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요소들의 분석 및 비교 읽기를 통해 각 본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

27 Ibid., 코헨은 발람의 강렬한 욕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욕망에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발람의 욕망이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였다. 특히 ‘피 남편’ 본문과 같이 난해한 이야기가 같은 구조로 구성된 다른 이야기를 통해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의 발견은, 모호한 본문의 메시지를 더욱 설득력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하겠다. 앞서 이루어진 분석과 비교 읽기를 통해 각 본문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 할 수 있다.

1) 재구성된 ‘피 남편’ 본문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여행 중 숙소에 있을 때 야웨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십보라는 단번에 아들이 할례를 해야 할 것을 알았다.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 보았지만 모세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다. 아들의 포피를 베었을 때도 모세는 알지 못했다. 그러자 십보라는 피가 흐르는 아들의 포피를 남편의 다리에 문질렀지만 모세는 알지 못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의 할례 때문에 죽을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당신은 정말 나에게 ‘피 남편’ 이군요!”라고 말했다. 그때 야웨께서 모세의 눈을 밝게 하셨다. 모세는 아들의 할례를 소홀히 했음에 야웨의 분노를 샀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했다. 그러자 야웨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

2) 재구성된 ‘발람과 나귀’ 본문

발람이 발라의 사신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는 길에 야웨의 사자가 발람을 대적하기 위해 길에 섰다. 하나님은 발람의 길을 사악하게 생각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발람은 야웨의 사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의 암나귀는 야웨의 사자가 자신의 주인을 죽이려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암나귀는 야웨의 사자를 피해 길을 떠났지만 영문을 모르는 발람은 채찍으로 암나귀의 방향을 돌려보려 했다. 발람이 여전히 자신의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만 안 암나귀는 담장 벽에 주인의 발을 짓눌러 알려주려고 했으나 발람은 여전히

히 알아차리지 못했다. 결국 피할 곳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야웨의 사자를 만나자 더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발람에게 상황을 알려주려 했으나 발람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암나귀를 막대기로 때린다. 그때 하나님이 암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행동이 부당함을 꾸짖는다. 발람은 나귀의 말을 듣고 비로소 눈이 열려 야웨의 사자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도 깨닫는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자격을 갖춘 발람은 계속해서 발락에게로의 여행을 이어간다.

5. 죽음 위협 구조: 하나님은 왜 모세와 발람을 죽이려 하셨는가?

1) 죽음 위협 구조

모세와 발람 이야기는 엠브리가 정의한 바 ‘사명 여행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구조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죽음 위협 구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행하는 주인공이 하나님에 의해 죽음 위협을 당하지만 결국 모면하고 계속해서 여행을 한다는 내용이다. 주인공이 왜 죽음 위협을 당해야 하는가? 죽음 위협 구조가 이야기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재구성 전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죽음 위협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하나님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함
- ② 중재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
- ③ 여행의 계속

재구성하기 전의 본문에서도 죽음 위협 구조를 구성해볼 수 있지만, 재구성된 모세와 발람 이야기 속 죽음 위협 구조 흐름은 앞선 것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목적하는 바가 뚜렷해진다.

- ① 주인공의 알지 못하는 죄
- ② 하나님이 죽이려고 함
- ③ 하나님에 의한 의도적인 주인공의 눈 멈과 중재자의 밝음
- ④ 중재자의 힌트(깨달음의 과정)
- ⑤ 주인공의 눈 뜸(깨달음)과 회개

이 ‘죽음 위협 구조’를 각 본문 속에 대입해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2) ‘피 남편’ 본문 속 ‘죽음 위협 구조’

① 주인공의 알지 못하는 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할례를 소홀히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② 하나님이 죽이려고 함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사명을 수행하러 가는 도중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 만나서 죽이려고 위협하였다.

③ 하나님에 의한 의도적인 주인공의 눈 멈과 중재자의 밝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눈치 채지 못했다.

www.kci.go.kr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반면 십보라는 모세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알고 행동한다.

④ 중재자의 힌트 (깨달음의 과정)

하나님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에게 지혜를 주셔서 십보라가 하나님의 위협을 눈치 채고 그 위협의 원인인 아들의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십보라는 부싯돌 칼을 들고,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것을 모세의 다리에 문질러 모세가 처한 상황을 알려주려고 했으나 모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결국 십보라는 입을 열어 “참으로 당신은 내게 ‘피 남편’ 이요!”말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모세는 하나님의 위협을 알아차린다.

⑤ 주인공의 눈 뜸(깨달음)과 회개

자신이 하나님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음과 그 이유가 아들의 할례를 소홀히 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모세는 회개를 통해 사명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갖추고 여행을 계속한다.

3) '발람과 나귀' 본문 속 '죽음 위협 구조'

① 주인공의 알지 못하는 죄

발람은 하나님이 발람의 사신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명령의 참 뜻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발람의 사신들과 동행하는 것 자체를 사악한 행위로 여겼으나 발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 여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② 하나님이 죽이려고 함

발람이 발락에게로 출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발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의 길이 사악하기 때문이었다.

③ 하나님에 의한 의도적인 주인공의 눈 멈과 중재자의 밝음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야웨의 사자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였고, 그가 탄 암나귀의 눈을 열어 주인 발람이 처한 상황을 알게 하였다.

④ 중재자의 힌트 (깨달음의 과정)

암나귀는 주인 발람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야웨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벽에 주인의 발을 짓눌렀지만 알아차리지 못하자 주저앉아버렸다. 발람은 나귀의 행동에 화가 나 막대기로 그를 때린다. 그러자 하나님이 암나귀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어 발람의 행동이 부당함을 꾸짖는다.

⑤ 주인공의 눈 뜸(깨달음)과 회개

암나귀의 말을 들은 발람은 눈이 밝아져 야웨의 사자를 알아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협의 상황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 야웨의 사자는 다시 한 번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만을 전할 것을 다짐하고 발람을 발락에게 보낸다.

4) 죽음 위협 구조의 역할

새롭게 재구성된 모세와 발람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죽음 위협 구조’는 주인공이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주인공은 자신이 깨닫지 못한 죄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사명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깊어지고 사명을 수행하려는 이들의 행동은 죽어야 마땅한 행동이었다.²⁸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죽음의 위협을 통해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들의 깨달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도면밀하고도 재치 있다. 하나님은 이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조정한다. 주인공은 하나님에 의해 눈이 멀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죽을 위협에 빠져있음을 모른다. 반면 그들과 동행하는 중재자들은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인공들의 영적 능력이 평범한 여인 혹은 비천한 동물보다 못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재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중재자들을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의 방법으로 힌트를 주는데, 주인공은 하나님이 눈을 밝히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다. 힌트의 마지막인 중재자들의 책망의 말을 신호로 하나님은 주인공들의 눈을 밝혀 자신의 처한 상황과 잘못을 깨닫게 한다. 주인공들은 회개하고 사명자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춘 후 다시 사명 여행의 길로 나선다.

일반적으로 성서는 신성을 다루는 것은 인간에게 위험하다는 확신을 반영한다.²⁹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주인공들은 언제나 위협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죄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죽음에 이르는 죄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 처음부터 죽음의 위협은 강력

28 레 10:1-7; 삼하 6:6-8; 대상 13:9-11.

29 William H. Propp, "That Bloody Bridegroom (Exodus IV 24-6)", *Vetus Testamentum* 43:4 (1993), 499; 창 32:31; 출 19:21-24; 20:15-18; 24:11; 30:20; 레 16:13; 신 5:5; 삼하 6:6-7; 왕상 8:11; 사 6:5; 사 13:22; 삼상 5:6; 왕상 8:11; 사 6:5.

한 효과를 가진 교육도구였던 것이다. 이 죽음의 위협은 주인공의 무지한 동안만 가해지는데, 무지가 끝나는 순간 죽음의 위협도 사라진다. 깨달은 자에게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허락된다.

6. 결론

서사비평적 분석과 읽기를 통해 모세와 발람 본문 속에 공통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는 ‘사명 여행 내러티브’이다. 두 이야기는 모두 주인공인 모세와 발람이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 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다. 엠브리는 이것이 특정한 문학 적 양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한다.³⁰ 이에 동의하면서, 필자는 이에 더하여 두 본문 속 ‘죽음 위협 구조’가 공통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명자가 사명 여행 중 죽음 위협을 당하고, 중재자의 도움으로 위협을 모면하여 그 여행을 계속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구조이다. 드러난 두 본문 속에서 ‘죽음 위협 구조’는 ① 하나님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함 ② 중재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 ③ 여행의 계속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비교 읽기를 통해 재구성 한 두 본문 속 ‘죽음 위협 구조’는 ① 주인공의 알지 못하는 죄 ② 하나님이 죽이려고 함 ③ 하나님에 의한 의도적인 주인공의 눈 떼고 중재자의 밝음 ④ 중재자의 힌트 (깨달음의 과정) ⑤ 주인공의 눈 뜸(깨달음)과 회개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죽음 위협 구조’가 목적하는 바를 더욱 뚜렷이 나타낸다.

이 ‘죽음 위협 구조’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육방법으로 역할 한다.

30 Embry, "The Endangerment of Moses: Towards a New Reading of Exodus 4:24-26", 179.

모세와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두 주인공이 사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죄를 가지고 사명의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그들은 죽어야 마땅했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 ‘죽음 위협 구조’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들은 선택 받은 자로서 갖추었던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 사라진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는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 동행하는 평범한 여인이나 암나귀는 하나님에 의해 지혜를 얻고 주인공이 처한 위협과 위험을 모면할 방법을 알게 된다. 이러한 대비는 주인공들이 그들의 교만으로 소홀했던 자신의 거룩함이 죽음에 이르는 중대한 죄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들의 능력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하는 장치이다. 결국 이들은 중재자들의 도움과 조언으로 위협을 모면하고 하나님이 돌려주신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사명자로서의 여행을 시작한다.

서사비평적 읽기를 통한 본문의 연구는 ‘하나님은 왜 모세와 발람을 죽이려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교육과정으로써의 죽음 위협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깨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 무자비하게 인간을 징벌하시지 않고,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다.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거룩이 아닌 인간의 거룩함의 회복임을 알

게 된다.

본 연구는 비교 분석한 결과를 상호 해석에 적용함으로써 본문의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 본문의 재구성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발람 이야기의 해석은 모세 이야기 속 대응하는 부분의 해석 방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모세 이야기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같은 구조, 같은 구성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본문들 사이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모호하고 난해한 본문을 해석하는데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이곤, “출애굽기 4:24-26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 -고난신학의 한 전거로서 읽을 수 있는가?” 「신학연구」 29 (1988), 115-134.
- 김정우, “성경 해석사에서 본 서사분석에 대한 서론적 고찰”, 「신학지남」 297 (2008), 132-155.
- 김진명, “발람 이야기의 단락 범위 재설정을 위한 제언”, 「구약논단」 46 (2012), 30-31.
- _____, “출애굽기 4장 24-26절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인가?” 「구약논단」 74 (2019), 12-34.
- 더햄, 존, 「출애굽기」, 손석태,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 박철현,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2.
- 왕대일, “본문 비평 없이 성서 해석이 가능한가? -민수기 22:5a의 본문 비평과 본문 해석-” 「Canon&Culture」 2:1 (2008), 179-208.
- 장일선, “구약 문학비평의 최근 동향”, 「신학연구」 38 (1997), 385-411.
- 정규남, “할레와 출애굽기 4:23-26의 해석”, 「ACTS 神學과 宣敎」 1 (1997), 53-89.
- 정중호, 「새로운 성경 해석과 설교를 위한 제사장 신학」, 서울: 대원기획출판, 2006.
- 포웰, 마크 알렌, 「서사 비평이란 무엇인가」, 이종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프레다임, 테렌스 E., 「출애굽기」 현대성서주석, 한미공동주석편집 역,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1.

Angel, Hayyim., “When God’s will cannot be alt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laam narrative and 1 Kings 13”, *Jewish Bible Quarterly* 33:1 (2005), 31-39.

Cohen, Jeffrey M., “Balaam, Did God change His Mind?”, *Jewish Bible Quarterly* 20:3 (1992), 120-126.

Embry, Bradly, “The Endangerment of Moses: Towards a New Reading of Exodus 4:24-26”, *Vetus Testamentum* 60:2 (2010), 177-196.

Horne, Charles F. ed., *The Sacred Books and Early Literature of the East*, 4, London: Parke, Austin, and Lipscomb, Inc, 1917.

McNamara, Martin and Maher, Michael, trans. *Targum Pseudo-Johathan: Exodus*. Edinbug: Clark, 1994.

Miller, Gideon, “‘Bloody Bridegroom’ in light of the Joseph narrative”, *Jewish Bible Quarterly* 41:2 (2013), 113-116.

Novick, Ricky, “Abraham and Balaam: A Biblical Contrast”, *Jewish Bible Quarterly* 35 (2007), 28-33.

Propp, William H., “That Bloody Bridegroom (Exodus IV 24-6)”, *Vetus Testamentum* 43:4 (1993), 495-518.

Robinson, Edward,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Coded with the Numbering System from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edited by Francis Brown, Samuel Rolles Driver, Charles Augustus Briggs. Mass: Hendrickson Publishers, 1996.

Safran, Jonathan D., “Balaam and Abraham”, *Vetus testamentum* 38 (1988), 105-113.

Savran, G., “Beastly Speech: Intertextuality, Balaam’s Ass and the Garden of Eden”, *Journal for Study of the Old Testament* 64 (1994), 33-55.

https://www.sefaria.org/Pirkei_DeRabbi_Eliezer.29.1?ven=Pirke_de_Rabbi_Eliezer,_trans._Rabbi_Gerald_Friedlander,_London,_1916&vhe=Pirkei_Derabi_Eliezer&lang=bi(검색일 2020.2.20.)

www.kci.go.kr

검색어

모세

피 남편

말람과 나귀

서사비평

하나님의 죽음 위협

A Narrative Critical Study for the Threat of Death by God : Focus on the story of ‘the bloody bridegroom’ (Exod. 4:24-26) and the story of ‘Balaam and his donkey’ (Num. 22:21-35)

Ha-Na Lee

Keimyung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ttempt a narrative-critical interpretation of the story of the ‘bloody bridegroom’ in Exodus 4:24-26 and the story of ‘Balaam and his donkey’ in Numbers 22:21-35 in order to offer a new answer to the question, ‘Why did God seek to kill Moses and Balaam?’

By this critical interpretation, we discover that the two stories have a lot in common, such as the position of the text in the narrative, the structure of the text, and the literary elements. This study attempts a mutual comparative reading of these two texts, presenting that the story of Moses was reconstituted-

www.kci.go.kr

ed through the story of Balaam.

The two stories have a distinguishing form, that is, the ‘structure of a death-threat’. The structure of a death-threat offers the answer to the main question of this study: ‘Why did God seek to kill Moses and Balaam?’ The structure of death-threat has the following elements: 1) The principal character has a sin of which he is ignorant; 2) God seeks to kill the principal character; 3) The principal character’s blindness and the mediator’s godly wisdom; 4) The mediator’s process of awakening and his repentance. The goal of the structure of the death-threat is to guide the principal character towards repentance. This study shows a possibility of a mutual interpretation based on a literary comparative reading between the biblical texts.

Keywords

bloody bridegroom

Balaam and his donkey

Narrative Criticism

Threat of Death by God

- 투고일: 2022년 1월 25일
- 심사일: 2022년 2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2월 17일

www.kci.go.kr